

옥성코리아(주)가 추천한 정 / 우 / 농 / 장

Feed Journal 농장 탐방



▲ 정우농장 박창식 사장과 아들 수열씨(사진 오른쪽부터)

2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농장

가축분뇨 자원화로
이웃과 함께 원원

>>> [취재 __ 오세진]



‘시작’ 소리와 함께 4개의 버너에 동시에 불을 붙였다. 각각의 불판 위에 놓여 있던 삼겹살이 구워지며 불판 아래 반혀놓은 컵에 기름이 고이기 시작했다.

5분 뒤 ‘종료’ 구령이 울리고 각 컵에 모아진 기름의 양을 재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같은 돼지고기 삼겹살이지만 지방 용출량에 큰 차이가 있던 것.

이번 실험은 옥성코리아(주)가 돼지고기 삼겹살의 지방용출량 등 품질비교평가를 위해 주관한 행사로, 백화점에서 구입한 두 개 회사의 브랜드육과 옥성코리아(주)의 주력 제품인 사료첨가제 폐낙-T와 돈사내 살포용 폐낙-G를 병행 사용한 한솔축산의 삼겹살을 비교했다.

각각의 박피한 브랜드육 및 한솔축산의 박피한 것과 하지 않은 삼겹살 250g씩을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두 개의 브랜드육에서는 25g과 49g씩, 한솔축산 삼겹살에서는 13g과 46g(박피하지 않은 것)의 기름이 나왔다.

실험 전부터 “우리제품을 사용한 농장의 삼겹살에서는 기름이 적게 나오기로 유명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옥성코리아(주) 김금수 대표이사의 얼

굴이 환해졌다.

김 대표는 “건강과 다이어트 등을 고려해 지방 섭취를 줄이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며 “물론 다른 사양 조건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폐낙 제품 사용 전후 지방용출량 비교 등 수년에 걸친 반복 실험 결과 분명 유의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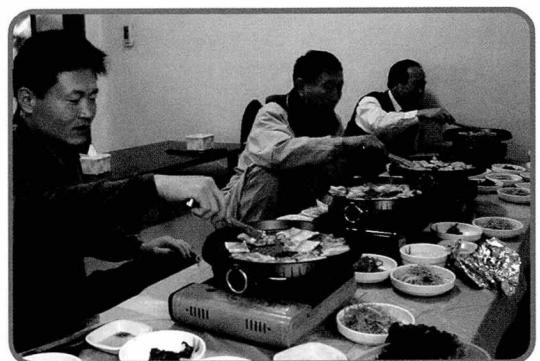
이날 자리를 함께한 한솔축산 장형기 사장, 역시 폐낙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정우농장 박창식 사장, 사료회사 관계자 및 기자들은 맛 역시 한솔축산의 삼겹살이 뛰어나다면 젓가락을 한 방향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오늘 실험은 한솔축산의 돼지를 시험 구로 삼았지만, 정우농장의 돼지 역시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특히 정우농장은 배설물 내 토착 미생물 증식 촉매 작용을 하는 폐낙-G를 출시와 동시에 10여년째 사용하고 있어 냄새 없는 농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분뇨처리 문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정우농장을 방문, 슬러리 돈사와 액비처리 시설 등을 둘러봤다.



▲ 옥성코리아(주)의 김금수 사장이 지방용출량 비교 실험을 위해 삼겹살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 동시에 불 붙이고 굽기.



▲ 기름 용출량 비교(왼쪽부터 박피하지 않은 한솔축산 삼겹살, 박피한 한솔축산 삼겹살, A포크, B포크).



▲ 200톤 규모의 액비저장조.

냄새 없는 농장, 이웃과 더불어 사는 농장

“우리는 소개할만한 우수한 농장이 아니에요.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PMWS 때문에 고생도 했어요. 그저 큰 욕심 없이 교과서대로 열심히 할 뿐이지 별 다른 것도 없고요.”

박창식 사장은 농장으로 향하는 내내 걱정하는 듯 했지만, ‘교과서대로’란 말에 기자는 이미 안심하고 있었다. ‘기본’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분명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

정우농장(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에 도착하니 우선 커다란 액비저장조 5기가 눈에 띈다.

“자, 따라 올라와 보세요.”

사다리를 타고 액비저장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액비가 코앞에 있는데도 거짓말처럼 냄새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 1기당 200톤 규모의 액비를 처리하죠. 폐낙-G를 슬러리 돈사 저장조 바닥에 물과 희석해 살포, 냄새없는 액비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악취 저감과 함께 호흡기 질병 예방 효과도 얻고 있지요. 돼지 코에는 털이 없어 분뇨 악취가 폐까지 직접 전달돼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

거든요.”

박 사장이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은 슬러리 돈사 바닥에서 나온 분뇨를 모아놓은 곳.

“발효가 잘 돼 슬러리 침전이 없다”며 나무막대로 휘휘 저어보였다.

“특별히 분뇨처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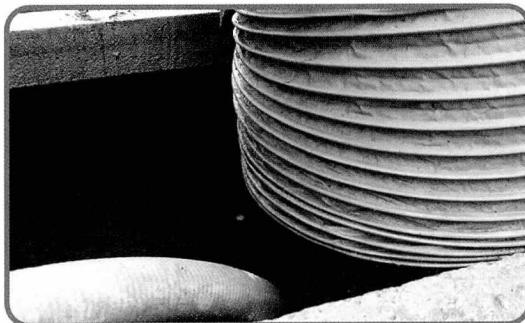
“사실 축산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좀 저자세가 돼야 해요. 개인적으로 이웃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 등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악취문제 등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결국 악취방지법도 제정됐잖아요. 전 좀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해양투기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렇게 액비화된 분뇨는 박 사장이 경작하는 7천여 평의 논과 이웃 주민들의 논, 밭에 고르게 뿌려진다.

시련, 그리고 새로운 시도

정우농장은 6개동 500여평의 슬러리 돈사에서 모돈 150두를 포함, 1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1985년 10두로 시작해 부인 문순자씨와 둘이서 ‘농장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자’는 신념으로 20여년을 한결같이 키웠다고 한다.



▲ 침전물이 거의 없는 정우농장의 슬러리.



▲ 험차게 젖을 빠는 포유자돈.

하지만 3년전 농장에 PMWS가 발병하며 자돈의 폐사율이 높아져 농장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무렵, 아들 수열씨가 나서게 된다.

수열씨는 “사실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보니까 농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농장 문을 닫기엔 너무 아깝고 ‘조금만 노력하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농장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도들을 감행한다.

우선 주변 농가들의 우수사례를 참고하는 등 자문을 얻어 농장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가기로 했다. 첫 번째 시도는 돈사를 지은지 오래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8천여만원을 들여 육성돈사와 자돈사 2동을 새로 지은 것.

다음으로는 분만사에 사료를 조금씩 자주 나눠서 주고, 비타민제와 면역증강제 급여량을 늘리고 물에 솔잎과 매실 액기스 등을 희석해 급여하는 등 급여 관리에 신경을 썼다. 지난해부터는 소화기관내 토착미생물 증식 촉매작용을 하는 폐낙T사료도 함께 급여하고 있으며, 급수통을 일일이 확인해보고 위생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특히 컨설팅을 통해 3~4개월째 접어든 임신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돈사에 합판을 깔아 주는 등 밤낮 없이 노력할 결과, 교배율이 높아지고 질병 발생률이 줄어드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농장

정우농장의 한 쪽에는 신축 우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소도 키울 계획이세요?”

“네. 흔히들 경종과 축산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난해 구입한 7천여평의 논에 사료작물도 심고, 그곳에 액비도 뿐 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사료작물을 이용해 소 70~80두 정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합영농이 미래영농 아니겠어요?”

박 사장은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뒤쳐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습득했기 때문인지 ‘미래에 대비’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컴퓨터 농장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고 새로 컨설팅도 받아봐야 한다며 대화를 멈추지 않았던 박 사장과 아들 수열씨.

“질병만 없었으면 좋겠다”던 이들의 바람처럼,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정우농장에 돼지들의 활기찬 ‘꿀꿀’ 소리만 가득하길 바란다. ⑤